

[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17)

예수님의 중보기도(2)

[본문: 요 17:3~11]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5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안다’는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과 집을 얻어 사는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잠시 하나님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소를 옮기고 호적을 옮기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날마다 새벽기도회에 나오니까? 한 20일 정도면 몰라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이기는 것입니다. 피곤과 한계와 연약함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고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일과 비밀이 그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한 번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담담하고 언제나 오늘이나 똑 같은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순을 위한 기도입니다. 각 순들이 생명력이 넘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를 찾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새 신자가 1백7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70명밖에

에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참 괴롭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지을 때 성도가 얼마 되지 않아 이곳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왜 그리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이 적은 탓입니다.

여러분,

복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릇이 작으면 쏟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그릇만큼만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쏟아주면 받고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망해도 택함을 받은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어느 쪽에 있는 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것은 서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사람’이 있고 ‘내게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차로 태워다 준다든지 해서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끝날 때는 아이를 기다렸다가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당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찾아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사탄에게 잠깐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주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말씀을 들을 수도, 말씀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되었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몰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이것은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는 것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하늘 끝에 가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성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 눈썹은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에베소서 6절, 12절,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꽃이 되고 영광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날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고, 바보같이

살고, 거지같이 살고,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이다』

이것을 가리켜 ‘신앙의 눈을 뜬다’, 혹은 ‘진리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8절까지는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귀한 존재로 섬기셨습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입니까? 이것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키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자식이 병들었을 때, 자식이 학교에 가지 않고 밥을 먹지 않을 때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이런 사랑을 쏟으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10, 11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운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떠나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열쇠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분리입니다. 헤어지는 것, 싸우는 것입니다. 몸의 특징은 연합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간 가족들이 돌아오고, 헤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두 개의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분열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가정도, 조직도, 자기 자신도 분열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민족이 하나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이런 기도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포기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 강하게 묶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남북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돌인지 하나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